2007학년도 수시2학기모집 논술고사 기출문제 - 오전

【문항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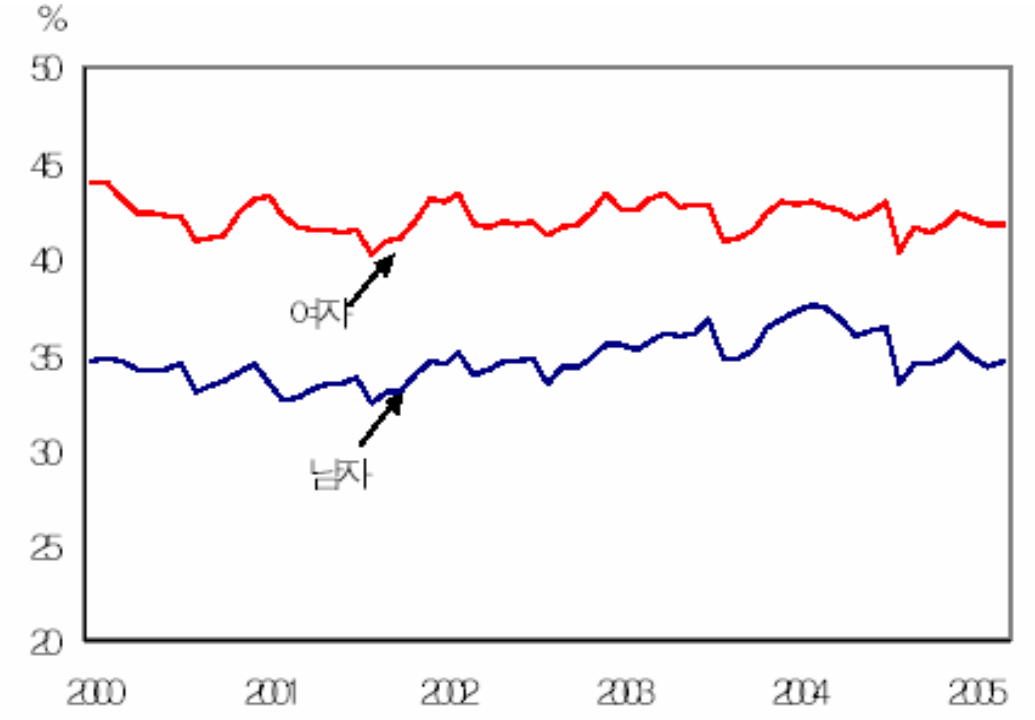
아래에 제시한 자료와 도표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 현황을 분석하고 여성 취업 장애요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가> 경제활동 참여율

(단위 %)

	1990	1995	2000	2005
남성(A)	74.0	76.2	74.2	75.0
여성(B)	47.0	49.8	48.6	50.3
차이(A-B)	27.0	26.4	25.6	24.7

<나> 취업자 중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 수 비율



<다> 여성 노동보상도 및 노동위상도 현황

(단위 %)

	노동보상도*	노동위상도**
2000	68.3	4.7
2001	68.3	6.6
2002	67.6	5.7
2003	68.4	5.4
2004	68.5	7.2
2005	69.4	8.1

* **노동보상도** :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 등의 보상을 적절히 받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결과지표로 시간당 임금 비율로 산정. 남성의 임금을 100%로 했을 때 여성 임금의 비율

** **노동위상도** : 승진 등에서의 차별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관리직 비율로 산정. 관리직 남성을 100%로 했을 때 관리직 여성의 비율

【문항 2】

제시문 ㉮와 ㉯를 읽고 학문의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제시문 ㉮>

학문의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 모르는 것이 나타나면 길가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물어보는 것, 그것이 올바른 학문의 방법이다. 어린 종이 나보다 한 글자라도 더 아는 것이 있다면 예의염치를 불문하고 그에게 배워야 한다. 남보다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여 자기보다 나은 자에게 묻지 않는다면 종신토록 아무런 기술도 갖추지 못한 채 고루한 세계에 자신을 가두어버리는 꼴이 되리라. 순임금은 농사일을 하고 질그릇을 구우며 물고기를 잡는 일을 직접 자기 몸으로 행하다가 마침내 제왕이 되셨는데 그 분은 남에게서 배우지 않은 것이 없다. 공자께서는 "나는 젊어서 비천한 사람이었기에 잘 하는 천한 일이 많다."고 하셨으니, 그 분이 말한 천한 일이란 농사일이나 질그릇을 굽고 물고기를 잡는 일 따위다. 순임금이나 공자는 성인이면서 동시에 기예(技藝)에도 능하신 분이다. 그렇지만 물건을 접할 때마다 기술을 발휘하고 일에 닥칠 때마다 기구를 제작하자면 시간도 부족할 것이며 지혜도 모자란 부분이 없을 수가 없다. 순임금이나 공자께서 성인이 되신 까닭은 남에게 묻기를 좋아하고 남이 말해준 것을 잘 배운 데 지나지 않는다.

– 박지원, <북학의 서문(北學議序)>에서 발췌 –

<제시문 ㉮>

요즘 학문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전과는 달리 외모를 단정히 하고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을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약삭빠르며 방탕하게 그리고 마음을 풀어놓고 살기를 좋아하는 젊은이들 중에는 이러한 학문 풍조를 듣고 제 세상 만난 듯 기뻐하며 받아들이고 결국은 처신하는 예절에 있어 제멋대로 해버리고 만다. 나도 전에 이런 풍조에 물들어 늙어서도 몸에 예절이 익지 않아 비록 후회하여 고치고자 해도 어려우니 매우 한스러운 일이다. 접때 너희들에게서는 옷깃을 여미고, 무릎을 꿇고 앉으며, 단정·정중하고 엄숙한 얼굴빛을 가꾸려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으니, 내 습관이 한번 더 심해져 너희들 꼴이 된 것이리라. 이 점은 성인들이 먼저 외모부터 단정히 해야만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원리를 전혀 모르는 탓이다. 세상에서 비스듬히 드러눕고 옆으로 삐딱이 서고, 아무렇게나 지껄이고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때문에 몸을 정중히 움직이는 것, 말을 절도 있게 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학문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일에 힘을 쓴다면, 비록 하늘의 이치에 통달하고 재주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식견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발뒤꿈치를 땅에 붙이고 바로 설 수 없게 되어 어긋난 말씨, 잘못된 행동, 도적질, 대악(大惡), 이단(異端)이나 잡술(雜術) 등으로 흘러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세 가지로써 서재(書齋)의 이름으로 삼고 싶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는 난폭하고 거만한 것을 멀리 하고 어긋난 것을 멀리 하고 미더움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이니라.

– 정약용, <두 아들에게 부치노라(寄兩兒)>에서 발췌 –